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로 소멸위기 돌파

경정장·위터파크·리조트 등 복합 체류형 산업 설계 조상래 군수 “지역 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곡성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경정장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정장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 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다.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지역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소멸위기 지역 제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K-관광 혁신팀을 출범시키며 지역 관광을 통한 성장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곡성군의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는 경정장을 중심으로 위터파크·리조트, 래프팅파크 등을 복합 조성해 관광, 레저, 문화, 숙박, 체험을 하나의 체류형 산업으로 설계하고 직접·간접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레저·관광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곡성으로의 귀향·이주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경정장 조성을 기존 사행산업 시설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주가 없는 낚에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상시 개방되는 사회 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해, 단순한 레이스가 아닌 레저·숙박·체험·문화 등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클러스터를 지향한다.

관광객 유치, 경주시행 수익, 지방재정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가 최근 K-관광 혁신팀을 출범시키며 지역 관광의 혁신모델을 확대하고 있어 곡성 경정장은 호남형 K-관광 대표 사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소멸위기 지역 제도약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정합성이 높다.

경정장을 중심으로 위터파크·리조트·

래프팅파크 등이 결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수와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복합환원공간으로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고흥군은 소록도에서 43년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스토거와 고(故) 마가렛 피사렉의 가족, 당시 두 분의 봉사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를 최근 방문했다.

소록도서 헌신한 ‘마리안느’ 현지 위문

국경 넘은 숭고한 봉사 정신 되새기며 감사 인사 전해

고흥군이 소록도에서 평생 헌신한 이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일 고흥군은 소록도에서 43년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스토거(92)와 고(故) 마가렛 피사렉의 가족, 당시 두 분의 봉사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를 최근 방문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1962년부터 소록도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 온 간호사로 2005년 본국 오스트리아로 귀국했다.

마가렛은 2023년 영면에 들었으며, 마리안느는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마리안느를 만나 “건강한 모습으로 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소록도에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흥군을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리안느는 “소록도와 고흥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두 분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자체 예산으로 매월 생활안정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봉사대상 시상, 청소년 봉사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반려견과 산책하며 교감 ‘댕댕순천, 힐링워크’

22일 신대지구 생태회랑 일원…선착순 접수

순천시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가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신대지구 생태회랑 일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가을 산책을 즐기는 ‘2025 댕댕순천, 힐링워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 동반 6.4km 코스 산책, 레크리에이션, 독피트니스, 반려견 건강상담, 셀프사진관, 비즈목걸이 만들기 등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

행사 사전신청은 20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는 100팀(1팀당 반려견 1마리 기준) 선착순 접수이며, 참가비는 팀당 1만 원이다. 행사 당일 추가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또 현장에서는 경품 추첨, 순천 대표 캐릭터 루미·뽕이 풍선 나눔, 따뜻한 먹거

리온 등 반려인 참가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돼 모두가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댕댕런’, ‘댕댕산책’, ‘댕댕트레인’, ‘댕댕캠핑’ 등 반려동물 친화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반려동물 동반 콘텐츠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5 댕댕순천, 힐링워크’ 행사를 통해 신대지구 생태회랑 또한 반려동물 친화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자연 속에서 머물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2025 여수일레븐브리지마라톤대회’ 열린다

29일 여수~고흥 잇는 5개 대교 구간… 하프·10km 코스 진행

여수시는 오는 29일 여수 돌산읍과 고흥 영남면을 잇는 구간에서 ‘2025 여수일레븐브리지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여수일레븐브리지마라톤대회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연도교를 달리는 대회다. 현재 11개 대교 중 7개가 완공됐으며, 공사 중인 4개 대교까지 준공되는 2027년에는 화태대교에서 팔영대교까지 전 구간을 편도로 달리는 국제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제1회 대회는 전남도·여수시·여수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일레븐브리지마라톤위원회(위원장 김경호)가 주관한다. 조발대교~둔병대교~남도대교~적금대교~팔영대교 등 5개 대교를 왕복하는 하프 코스와 10km 코스 두 종목으로 운영된다.

앞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로 두 차례 취소됐지만 해상교량을 달리는 이색 코스는 점에서 마라톤 등

호인들의 기대를 모아왔다.

김경호 조직위원장은 “7년여 준비를 거쳐 첫걸음을 뒀게 되는 만큼 안전하게 준비해 여수의 새로운 스포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향후 국제대회로 성장하고 ‘한 번은 꼭 뛰어보고 싶은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여수시,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고흥군, 고흥경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함께 최근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된 백리섬섬길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 여수일레븐브리지마라톤대회 누리집(11bridgemarat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오봉산 용추동·칼바위 일원 명승 지정

자연·문화유산 가치 두루 갖춘 대표 경승지

보성군의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이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돼 온 보성의 대표 자연경관이다.

협준한 기암괴석과 풍혈 지형,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 득량만 해안 풍광 등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상과 개홍사지 등 불교 신앙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제 봉행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종교적·민속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통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석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체석지 흔적과 구들장을 운반하던 우마차길 등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자연·문화·산업사적 가치가 함께 담긴 복합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군은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국가유신청·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에 대한 학술 조사, 연



구, 보존 관리, 활용 프로그램 등의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탐방로 정비, 안전·편의시설 구축, 전문 해설·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품 자연유산 관광지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의 명승 지정은 군민과 함께 지켜온 보성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보성의 자연·문화유산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6@gwangnam.co.kr

마음건강치유센터, 통합의료 중심기관 자리매김

참여 인원·운영 횟수 대폭 증가

장흥통합의료병원 내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지역정신건강 치유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마음건강치유센터가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와 프로그램 운영 규모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인원은 2021년 442명에서 2024년 4505명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같은 기간 28회에서 227회로 9.4배 확대됐다. 올해 말에는 4867명 참여와 264회 운영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병원 기반의 맞춤형 통합의료 치유프로그램

램과 지역의 산림·해양·농업 자원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치유 모델을 꼽고 있다.

센터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연간 수익의 30%를 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에 재투자하며 치유 환경과 프로그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5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단체 전시설 3실, 개인 치유프로그램실 10실 등 새로운 공간을 추가 확보해 이용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과 시설 확충을 계기로 더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추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장흥통합의료병원 내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지역정신건강 치유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